

반반 북큐레이션

일상 vs 여행



- 2021년 8월 -

잠깐

북큐레이션이 뭐예요?

사서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서 중에서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유익할 거라고 판단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에 해당되는 도서(정보)들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선정하고, 그 도서를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특정 위치 혹은 장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식으로 흥미롭고 세련되게 전시(display)하는 일련의 활동

[출처: 김영성, 박연식, 이용주. 『북 큐레이션, 책으로 말을 걸다』, 경기도 사이버도서관. 2018. p.18]

일상



그 녀석이 왔다! /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그 녀석은 보통 늦은 오후에 집 안으로 들어와요.



작가 / 다비드 칼리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그 남자가 저기 있어.



집에 온 고양이 빈센트 / 제시카 배글리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빈센트는 화물선에 사는 고양이예요.

여행



건물들이 휴가를 갔어요 / 이금희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휴, 덥다, 더워! 너무 더워 숨 쉬기도 힘들지만 괜찮아요.



머나먼 여행 / 에런 베커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(글 없는 그림 책)



밖에 나가 놀자! / 로랑 모로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왜 집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니?

어린이에게



추천하는 책

일상



오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/ 펠리치타 살라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정원의 거리 10번지에 가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요



노각 씨네 옥상 꿀벌 / 이혜란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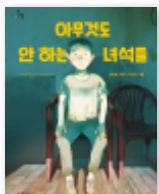
아침이 오면 도시는 바빠집니다.



팽이 도둑 / 서정오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내가 팽이를 도둑맞은 건 지난달 말께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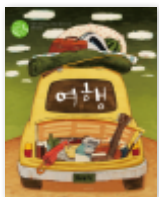


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/ 김려령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집에서 북소리를 듣는다.

여행



여행 / 신형건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아빠, 참 이상해요.
배낭 가득 짐을 꾸렸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.



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이상한 휴가 / 이윤민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야호! 오늘부터 엄마, 아빠의 휴가가 시작되었어요.



사계절 생태 캠핑 / 권오준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"딱딱딱 딱딱딱딱' 캠핑장 어디선가
나무 쪼아 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



클로디아의 비밀 / E. L. 코닉스버그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클로디아는 낯아빠진 방식으로는
절대로 가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.



일상



드라마 속 과학인문학 여행 / 최원석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카를로 로렌치니는 신문에 살아 움직이는 나무 인형의 모험 이야기를 연재한다.



똑똑한, 이상한, 꿈틀대는 뉴미디어 / 주형일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여러분들은 아마 '뉴미디어'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.



좀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녀석들 / 저널 세인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어딜 가나 사방에 AI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, 이것은 '인공지능'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너무 많은 탓도 있다.

여행



나와의 연락 / 유지혜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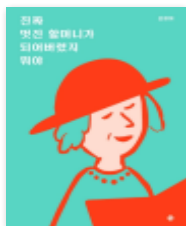
"중심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?"



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/ 정유정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"얼씨구, 너 혼자 뭘 어찌고 어째?"



진짜 멋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지 뭐야 / 김원희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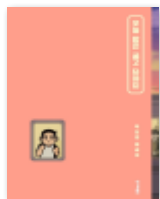
나는 운전을 못한다. 수영도 못한다.

성인에게



추천하는 책

일상



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/ 박상영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새벽같이 일어나 에스프레소 더블 샷을 내려 마시고, 간단히 오믈렛을 해 먹는다.



삶을 바꾸는 책 읽기 / 정혜운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첫 번째,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면 이 스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


집 다운 집 / 송멜로디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코리빙,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.



친애하는 나의 집에게 / 하재영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나는 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인 20세기 중반의 풍경에 향수를 느낄까?

여행



내 옆에 있는 사람 / 이병률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다.



여수 / 서효인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도시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.



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/ 박연준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"네 이름을 발음하는 내 입술에 몇 개의 별들이 얼음처럼 부서진다."



할매, 밥 됩니까 / 노중훈

* 첫 문장 미리 읽기

"옆집 가서 먹어."
내가 범상집 어머니로부터 들은 첫 번째 대답이었다.